

제6실 | 서예 | 호류지에 전래된 법화경

N-12 법화경

황마지에 옅은 먹으로 경계선을 그은 용지에 『법화경』 8권을 필사한 작품으로, 한 행에 17자가 들어갑니다. 글씨가 약간 굵고, 힘있는 필치로 쓰였으며, 8권 모두 한 사람의 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나라시대의 정돈되고 단정한 사경 작품과 비교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헤이안시대에 걸쳐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

제6실 | 염직 | 수리 후 첫 공개하는 포 조각과 포 조각 복원 모조품

염직 코너에서는 2020년에 수리가 완료된 기악의 의상인 포의 조각과 함께 수리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를 근거로 문화재활용센터와 도쿄국립박물관이 공동으로 제작한 복원 모조품도 전시합니다. <포 조각>은 쇼소인 보물 중 고대 포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매우 귀중합니다. 이 작품은 호류지헌납보물 중 미정리품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번 전시가 수리 후 첫 공개입니다. 또한 복원 모조품은 수리 과정에서 밝혀진 작품의 구조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. <포 조각>을 복원 모조품과 비교하며 작품의 본래 모습을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.

N-325: 포 조각 나라시대 8세기 평직 비단

고대 가면극인 기악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포의 조각입니다. 현재로서는 오른쪽 앞부분과 오른쪽 소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겉감으로는 황색으로 염색한 평직 비단을 사용하고 안감으로는 담갈색의 평직 비단을 사용했습니다. 오른쪽 앞부분의 안감에 허리끈이 있어 왼쪽 앞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. 수리에서 안감과 겉감을 해체하여 각각 한 장의 비단으로 펼친 후 와시(일본 종이)로 배접하여 원래 형태로 짜 맞추었습니다.

기악 의상 포(모조) 2021년 평직 비단

N-325<포 조각>의 해체 조사로 밝혀진 구조와 치수, 마감 방법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원 제작한 포입니다. 양 겨드랑이 부분은 박음질되어 있지만 하단의 벌어진 틈 부분에 다른 비단을 덧대어 장식했습니다. 원래 작품의 오른쪽 앞부분 안감에 있던 허리끈을 참고하여 왼쪽에도 허리끈을 달아 왼쪽 앞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복원했습니다. 포 위로 허리띠 등을 둘러 착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.

감수: 문화재활용센터 · 도쿄국립박물관

제작 총괄: 주식회사 센기렌

평직 비단: 나가이오리모노 주식회사(나가이 고사부로)

염색: 곤쿠 모리 요시노리

완성: 시타테야 지나미(사카모토 다즈코)